

양안 ECFA 협정과 한·중·대만의 경제관계

河凡植(Bumsig Ha)

國立高雄大學東亞語文學系兼任助理教授

I. 서론

2010년 들어서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연합(아세안)과의 FTA가 전면 발효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아세안+1 FTA 형식의 경제통합체제가 구축되었다. 동북아 주요 경제국과 동남아 국가 연합의 경제가 결합하면서 역내 경제 지역화(economic regionalization)의 색채가 더욱 강화되었다. 대만은 역내의 지리의 중심에 위치한 무역입국으로 역내 주요 경제체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rinciple) 견지와 국제정치 현실의 한계로 인해 역내 경제통합에서 제외되어 역내에서 무역경쟁력 약화 및 경제적 변방화에 전략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은 대만의 최대 교역 대상국가로서 대만 경제발전의 제일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만과 역내 다른 국가들 간의 FTA 건립을 반대하고 역내에서 대만의 경제적 고립을 야기하고 있다. 대만이 역내 경제 지역화에서 제외되면 대만은 역내 수출에서 관세차별을 받을 것이고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며 이는 수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대만 경제에게 치명적이다.

따라서 대만은 역내 경제 지역화에 따른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서 자국의 경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만이 선택한 것은 중국과 경제협력체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의 체결이다. 대만은 중국과 ECFA 체결의 목적은 양안간의 경제교류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하려 하였다. 또한 중국과 ECFA 체결을 발판으로 역내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하여 대만이 직면한 무역경쟁력 약화와 이에 따른 경제 변방화의 위기를 탈피하려 하였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역내 국가들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더욱 그러하다. 200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26.6%으로 2위인 대일본 수출 14.0%의 2배 가까이 기록했다.¹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전체 수출의 23.8%로 10.3%로 2위인 대미국 수출의 2.3배이다.² 수출 의존도가 높은 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양국 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만과 한국의 과도한 대중국 수출 편중으로 양국의 경제는 중국과 경제관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대만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주력품목은 전자, 석유화학, 기계, 방직 등의 산업제품으로

¹ 中華民國進出口貿易國家(地區)名次表 國際貿易局 <http://cus93.trade.gov.tw/FSCI/>(下載日期:2010年6月25日)。

² 한국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top/state/n_submain_stat_kita.jsp?menuId=01&subUrl=n_default-test_kita.jsp?lang_gbn=kor^statid=kts&top_menu_id=db11&lang_gbn=kor(검색일자: 2010년 6월 26일).

양국은 중국수입시장에서 최대의 경쟁 상대 있다. HS 코드 4 단위 기준으로 한국과 대만은 대중국 수출 20 위 내의 품목 중에서 14 개의 항목이 상호 중첩되어 서로 중국수입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대만과 중국의 ECFA 체결은 대만에게 중국수입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반면 중국시장에서 대만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위축시킬 것이다. 따라서 대만과 중국의 ECFA 체결은 양안 간의 경제관계 뿐만 아니라 한중 간의 경제관계까지 연동되어 있다.

상술한 논점을 근거로 본 논고는 양안 ECFA 체결이 대만과 중국, 그리고 한국 간의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 논고는 우선, 대만이 직면한 대외무역 상황을 진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만이 추진하는 양안 ECFA의 전략적 함의와 ECFA 협의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ECFA가 미래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경제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II. 대만의 양안 ECFA 추진 배경

1. 대외무역교류의 현황

대만은 산업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하다. 따라서 대만은 무역입국으로 무역은 대만 경제발전의 혈맥이며 경제는 대만 생존의 근본으로 자리했다. 대만은 전통적으로 해외자원 수입 가공해서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가공무역에 주력하였다. 1950-80년대 까지 대만의 주요 무역대상은 미국과 일본이었다. 특히, 대만은 1970-80년대까지 일본에서 중간기재와 부품을 수입해 와서 가공한 후, 완성품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삼각무역에 주력하였다. 이로 인해 대만 대외무역의 50%-60%는 미국, 일본과의 무역이었다.³ 특히, 1980년 들어서서 대만의 대미국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대미국 수출은 대만 경제성장에 최대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1985년 대만의 대미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48.1%를 기록하며 제 2 수출국인 대일본 수출 규모의 약 4.3 배의 차이를 기록하였다.⁴ 따라서 1980년대 미국은 대만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서 대만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만의 대미국 수출은 전체 수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5년에는 23.4%, 2005년에는 14.6%, 2009년에는 11.5%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경제 영향력 역시 감소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1990년대 들어서서 대홍콩무역이 증가해서 1985년 8%대의 수출이 20%대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무역교류 또한 10%이상을 차지하면서 대동아시아 지역 수출량이 50%를 차지하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선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인해 대중국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최대 수출대상으로 부상했다. 2000년대 대만의 대외수출 현황을 보면, 대중국 수출의 급증 이외에도, 대아세안 국가 및 대한민국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역대 주요 수출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1980년대까지 미국과 일본에 크게 의존하였던 대만의 대외

³ 薛化元, **台灣貿易史**(台北: 外貿協會, 2008年), 頁 367.

⁴ 武冠雄, **中華民國的對外貿易**(台北: 正中書局, 1988), 頁 19-20.

수출구조은 동아시아 역내 개발도상국 위주로 변모하게 되었다.

표 1: 대만의 주요 수출 지역 및 국가 현황

(화폐단위: 억달러)

	1989	1995	2005	2008	2009
중국	-	3.7(0.3%)	436(21.9%)	668(26.1%)	542(26.6%)
홍콩	70(10.6%)	261(23.3%)	340(17.1%)	326(12.7%)	294(14.4%)
아세안 10 국	55(8.3%)	149(13.3%)	273(13.7%)	389(15.2%)	305(15.0%)
일본	90(13.7%)	131(11.7%)	151(7.6%)	175(6.8%)	145(7.1%)
한국	11(1.7%)	25(2.3%)	58(2.9%)	87(3.4%)	73(3.5%)
동아시아	226(34.3%)	570(50.9%)	1258(63.2%)	1645(64.2%)	1359(66.6%)
미국	240(36.2%)	264(23.6%)	291(14.6%)	307(12.0%)	235(11.5%)
북미주	258(38.9%)	278(24.9%)	308(15.5%)	326(12.7%)	250(12.2%)
유럽	109(16.5%)	157(14.0%)	236(11.8%)	299(11.6%)	226(11.1%)
합계	663	1,116	1,984	2,556	2,036

자료출처: 中華民國進出口貿易統計, 經濟部國貿局, <http://cus93.trade.gov.tw/FSCI/> (下載日期: 2010年7月1日).

현재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성장단계에 있는 경제구조로 인해 대외수입에 대한 수요가 높다. 대만은 역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역내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친근하여 역내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중국은 대만과 같은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들의 화교 경제권도 문화적으로 대만과 친근하다. 이러한 지연관계의 밀접성으로 인해 대만은 역내 국가들과 경제관계 유지와 역내에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다른 경쟁국보다 유리하다. 2009 년 대만의 역내 국가에 대한 수출은 대만 전체 수출의 66.6%에 이르렀다. 그 중, 중국(홍콩 포함)과 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출은 55%로서 1970-80 년대 대만 수출에서의 대미국, 대일본 수출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국과 아세안 경제는 대만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였다.

2. 높은 수출의존도

대만은 자연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밀도가 높아서 처음부터 수입으로 공급을 제공하고 수출로 소득을 창출하는 무역을 중시했다.⁵ 따라서 대만 경제성장의 관건은 대외개방, 시장확보, 경쟁력향상에 달려 있었다.⁶ 대외무역은 대만이 경제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만 경제성장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발전과정에서 대만은 대외수출의 지속적 확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경제정책을 택하였다. 이러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대만은 전통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무역 의존도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대외무역의 비율을 말한다. 무역 의존도는 대체로

⁵ 于宗先, 「對外貿易與經濟穩定」, 薛琦主編, 台灣對外貿易論文集(台北:聯經, 1994年), 頁304.

⁶ 劉大年, 「兩岸建構 ECFA 的意涵與前景」, 展望與探索, 第7卷第4期(2009年4月), 頁18.

자국의 경제규모와 내수시장 그리고 자원보존량에 의해 결정된다. 대만은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경제규모와 부존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출에 주력하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내수시장 역시 크게 형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적인 경제조건으로 인해서 대만의 무역의존도와 수출의존도는 다른 무역강국들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서 세계 경제 경기의 회복 속에서 대만의 대외 무역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 의존도를 더욱 심화되서 2004년에 이미 100%를 돌파하고 2008년에는 126%까지 치솟는 등 무역 총액이 국내총생산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만의 무역성장은 무역 의존도와 수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만의 수출 의존도는 2006년에 60%를 넘어섰고 2008년에는 65%까지 이르렀다. 이는 수출이 대만 국내총생산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2008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최대 수출국인 독일의 39%,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9%와 15%, 무역 경쟁국인 한국의 44% 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치이다.

대만은 제조업을 중심의 가공무역을 통하여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그리고 대외무역 수지흑자를 통하여 경제성장과 산업향상을 도모해 왔다. 이러한 연유로 수출주도형의 경제가 대만경제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대외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대만은 대외경제 환경변화의 영향에 상당히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외경제 환경 악화는 대만의 대외수출을 위축시키게 되고 대외수출 위축은 결국 제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경제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3.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

대만의 대외수출은 1998년에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한 이후,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이루었다. 대만의 국제무역국 통계기록에 의하면, 2008년도 대만의 수출 총액은 2,556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수출 감소추세가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도까지 지속되어 2009년도의 수출은 전년보다 20.3%가 감소되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만 경제 입장에서 이러한 수출 부진은 대만 경제성장에 치명적이다. 대만 행정원 주계처(主計處(한국의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수출이 극도로 부진했던 2009년도 대만 경제는 -1.87%의 성장을 기록하였다.⁷ 이것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만 경제구조가 외부 경제변수에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만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외경제 환경의 안정과 안정적인 수출시장 개척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은 대만의 제 1, 제 2의 수출대상지역으로 대만 전체수출의 41.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대중국, 대아세안 수출을 위한 경제관계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지역주의 대두로 역내 각국들은 FTA 협정을 체결하며 피차 간의 관세를 철폐하고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피차 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경제이익을 확대하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삼국은 아세안과의 FTA 체결 또는 관세철폐 통해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우선, 2009년 9월에 한국과 아세안 간의

⁷ GDP 及經濟成長率, 行政院主計處, <http://www.dgbas.gov.tw/public/data/dgbas03/bs4/ninews/9902/t1.xls> (下載日期: 2010年7月7日).

FTA 가 전면발효되어 양자 간의 무역품목 중의 90%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또한 2010 년 1 월에는 중국과 아세안 간의 FTA 가 전면발효되면서 쌍방 간의 무역품목 중의 90%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그리고 일본과 아세안간 경제파트너협정(EPA)는 2018 년까지 양자 교역품목의 91%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서는 아세안+1(한, 중, 일)방식의 경제통합이 완성되어가고 있다.

동아시아는 대만의 최대 수출시장과 최고 무역경쟁대상이 함께 있는 지역으로 대만 수출성장에 핵심적 작용을 하는 지역이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는 대만 수출의 40%이상을 소화하는 신흥시장이다. 그러나 중국과 아세안 수입시장은 대만의 수출경쟁상대인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들 시장에 대한 양국의 수출품목 또한 상당수가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양국은 역내 수출시장장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0 년부터 아세안과 중국, 아세안과 한국은 피차간 대부분 상품무역의 수입관세 철폐되었다. 그러나 대만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여전히 징수되고 있다. 대만이 역내 국가와 FTA 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과 아세안, 한국과 아세안 간의 FTA 전면 실시는 대만기업에게 상대적인 고관세와 차별대우로 이어져 자신의 최대 수출지역인 중국과 아세안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또한 수출경쟁력 약화는 결국 수출 부진으로 이어져 대만 수출산업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대만의 경제성장을 위협할 것이다. 실제로 대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만이 배제된 상황에서 역내 경제통합은 대만의 GDP 감소, 수출입량 감소, 무역조건 악화, 사회복지액 감소 등이 발생하여 대만경제에 마스너스 작용한다.⁸

역내 경제통합에 따른 대외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대만도 역내 주요 경제체들과 FTA 구축해서 대만기업의 대외무역과 투자에서의 혜택을 쟁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견지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의 장벽과 국제정치적 현실로 인해 대만과 역내 국가들과의 FTA 추진은 상당한 장애가 도사리고 있다. 중국은 역내에서 정치적으로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최대의 수출시장이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은 대만과 FTA 체결을 하는데 있어 불가피하게 중국의 태도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대만은 양안 경제교류와 국제무역상에서 반드시 중국과 공감대를 만들어야지만 현재 대만이 역내 국가와 FTA 체결 추진상에서 직면한 난관을 돌파하여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다.⁹ 대만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결국 대만의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에서 소외를 방지하고 대만의 무역이익을 제고하는 지렛대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대만에서는 대외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탈피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과 경제관계협력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대만은 중국과의 경제협력강화체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2010 년 6 월 29 일 양안 경제협력체협정(ECFA, 중국어로는 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를 체결하였다.

⁸ 譚瑾瑜, 「東協-中國自由貿易區成立及兩岸簽署 ECFA 對台灣經濟之影響評析」, **展望與探索**, 第 7 卷第 8 期(2009 年 8 月), 頁 98-105.

⁹ 郭國興, 「析論東亞區域經濟整合與台灣經貿策略」, **展望與探索**, 第 7 卷第 11 期(2009 年 11 月), 頁 38.

Ⅲ. 양안 ECFA 의의와 내용

1. 대만의 ECFA 의 추진목적

대만은 역내에서 FTA 를 통한 양자 간 경제통합에 따른 대외무역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역내 양자 FTA 구축에서 제일 앞서고 있다. 현재 중국-아세안 FTA 체제를 구축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FTA 도 협상중에 있다. 중국은 양자 FTA 구축을 통해 한국-중국-아세안 경제 벨트를 형성하여 역내에서 경제통합을 주도하고 선두국가로 도약하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만 경제에 위기로 작용한다. 특히 대만과 중국 사이에 경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의 FTA 체결은 한국상품에 의해 대만상품이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대만 경제에 치명적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¹⁰ 또한 대만이 배제된 역내 경제공동체는 대만 경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은 대만의 최대 수출시장임과 동시에 역내 경제협력의 핵심이다. 따라서 대만에서는 중국과의 ECFA 체결을 통한 대외경제 위기 극복이 대두 되었다. 사실 대만의 양안 경제관계 개방에 대한 제일 중요한 착안점은 대만 경제발전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데 있다.¹¹

대만 경제부에 따르면, 대만의 양안 ECFA 추진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양안 간의 무역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비록 대만과 중국은 모두 WTO 의 회원이지만 피차간의 무역교류에서 여전히 많은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는 역내 경제공동체에서 대만이 고립되는 것을 탈피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피차간의 관세를 철폐하고 있다. 만약 대만이 주요 무역상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 한다면 대만은 중요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경제적 고립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대만의 제일 중요한 수출지역으로 ECFA 체결은 대만의 수출시장인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국시장을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 다른 국가와 FTA 체결하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셋째는 대만 무역투자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중국 및 다른 국가와 경제협정 체결은 대만이 글로벌 무역체계에 융합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대만을 동아시아 무역투자의 중심으로 건설하는데 유리하다.¹²

따라서 대만의 ECFA 체결은 미래의 대만 대외경제이익을 좌우하는 대외경제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당장의 ECFA 체결에 따른 이익으로는 대만의 수출경쟁국가들이 중국과 FTA 를 아직 체결하지 못 한 상황에서 대만에게 중국시장에서 대만의 경쟁력 강화하게하고 중국내수시장을 선점하게하여 대중국 수출을 증대시킬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도 ECFA 체결은 양안관계 개선을 정착시켜서 대만의 지연정치적 위험(risk)을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과 근접하고 동북아와 동남아 중간에 위치한 대만의 지리적인 잇점으로 인해 대만을 중국으로 진출하는 관문으로 부상시킬 것이다.

¹⁰ 胡春天, 「建立兩岸經貿合作協議原則性之研究」, 兩岸經貿合作與交流研討會(台北:台北大學研洲研究中心與經濟部國際貿易局主辦, 2009年1月15日), 頁13.

¹¹ 蔡學儀, 兩岸經貿之政治經濟分析(台北:新文京開發, 2006年), 頁53.

¹² 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ECFA)溝通研討會(台北:經濟部主辦, 2009年3月19日), 頁19.

따라서 대만의 ECFA 추진은 정치경제적으로 대만의 장래와 결부된 대중국 관계개선을 통해서 자국의 지연경제적 환경을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대외무역 환경을 개선하여 자국의 경제익을 확보하려는 지역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ECFA 의 성격

대만과 중국은 2010년 1월 26일 베이징에서 ECFA 협상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시작한 이래, 불과 5차 회의인 동년 6월 29일 ECFA 체결에 서명하면서 차이완(chiwan)이라는 새로운 양안 경제체제를 구축하였다. ECFA는 2008년 집권한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2000년 이래 불황에 빠진 대만 경제를 회복시키고 대만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한 대중국 경제관계 정상화 정책이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의 대만으로서 경제성장을 위해서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홍콩 포함)과 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대만정부는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곤경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CECA)을 발표하며 중국과 조속한 무역협력협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CECA는 중-홍콩 및 중-마카오 간에 체결한 경제진밀화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의 영문 약칭과 유사하여 대만에서 대만의 지위가 홍콩화처럼 중국의 특구처럼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출현하며 대중국 협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대만정부는 양안 경제협력 명칭을 CECA에서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로 바꾸어 추진하며 대중국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려 하였다. 그러나 비록 명칭은 바꾸었으나 양안 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대만내의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CEPA와 ECFA는 중-홍콩, 대만-중국 간의 관세철폐, 무역간소화 등 경제협력 내용은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협정에는 형식적인 차이점이 있다. 즉, 중-홍콩, 중-마카오 간의 경제협정은 영문으로 「Arrang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Arrangement」는 정당 간이나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비정식 협정이나 안배이다. 이에 반해 대만과 중국의 경제협정 ECFA는 「Agreement」를 사용하였다. 국제법에서 「Agreement」는 국가 간의 정식협정을 가리킨다.¹³ 그리고 ECFA는 양국 의회의 비준절차, 발효규정, 종료조항 등의 국가 간 협정형식을 갖추고 있다.¹⁴ 따라서 양안 간의 ECFA는 CEPA와 달리 국제법적 형식과 내용을 보유하고 있는 FTA에 준하는 협정이다.

특수한 관계로 인해 양안 간의 경제협력 역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고 있으며 ECFA 역시 예외는 아니다. 즉, 중국입장에서 보면, 양안 간의 ECFA는 장래 대대만 영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중국중심의 중화경제권을 형성하여 역내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그러나 FTA는 국가와 국가 간의 체결하는 국제협정이고 만약 대만과 FTA를 체결하면 국가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중국의 하나의

¹³ 王泰銓, 劉家華, 「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ECFA)之形式架構與實質內容」, 月旦法學雜誌, 169期(2009年6月), 頁187.

¹⁴ 권혁재,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향,” SERI 경제포커스, 300호(2010. 7. 6), p. 4. <http://www.seri.org/db/dbReptV.html?menu=db03&pubkey=db20100706001>(검색일자: 2010. 7. 6)

중국 원칙과 충돌된다. 따라서 중국은 FTA 형식의 경제협력협정을 절대로 채택할 수 없다. 그리고 대만은 중국과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통하여 현재 직면한 경제적 난관 해소하고 더 나가 국제무대에서 경제적 활동 공간을 개척하여 경제적 주변화 위기를 탈피하려 한다. 그러나 CEPA 형식의 경제협력협정은 대만을 홍콩, 마카오와 같은 중국의 특별행정구 지위로 전략할 위험을 내포하여 대만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대만과 중국의 정부는 양안의 특수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FTA 와 CEPA 의 절충형¹⁵이라고 할 수 있는 ECFA 의 형식으로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양안 간의 이러한 ECFA 체결은 결국 대만의 정치경제적 실리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라는 정치경제적의 전략에 따른 이해관계가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3. ECFA 의 주요 내용

대만과 중국이 체결한 ECFA 는 무역관세의 장벽 및 서비스 무역의 제한성 조치를 제거하고 무역 투자의 간소화와 산업교류 촉진을 통해 양안 간의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만과 중국은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 조기수확 등을 중심으로 ECFA 의 실행 원칙과 계획 그리고 실행 범위를 담은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ECFA 협정문은 본문과 부속서로 나누어져 있다. 본문은 서론과 총칙,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 조기수확, 기타 등 5 장과 16 조로 구성하여 양국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기하고 있다.¹⁶ 또한 부속서에는 상품 무역 조기수확 상품의 품목과 관세 인하, 상품의 원산지 규정 적용, 쌍방 간 방위 조치 적용, 그리고 서비스 무역 조기수확 부문 및 개방 조치 및 서비스 제공자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CFA 협정은 시장개방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본문 제 2 장에서 상품과 서비스, 투자에 관한 시장개방 협상을 협정 발효 후 6 개월 이내 하기로 한 기본협정이다. 그러나 대만과 중국은 조기수확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조치를 통해 특정 분야의 선행 개방을 허용하여 조속한 협정의 완성을 모색하였다. 협정문 제 1 부속서 상품무역 조기수확 제품 목록 및 관세 인하 배정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에 개방하는 상품 품목과 서비스 분야는 석유화학, 기계, 방직, 운송기구, 기타, 및 농산물 산업에서 HS8 단위 기준으로 539 품목을 개방하기로 하였다.¹⁷ 그리고 이들 품목의 관세는 조기수확프로그램 실시 후 2009 년 관세율에 따라 아래 표 2 와 같이 3 년에 걸쳐 완전 철폐하기로 하였다.

¹⁵ 형식적으로 중국은 FTA 라 명칭을 피하고 대만은 국제법사에서 국가 간의 협정에 사용하는 Agreement 를 쟁취하여 상호모순을 피하였다.

¹⁶ 海峽兩岸經濟合作結構協議: 本文, 中華民國經濟部, http://www.moea.gov.tw/Mns/populace/news/News.aspx?kind=1&menu_id=40&news_id=19038(下載日期: 2010 年 7 月 16 日).

¹⁷ 海峽兩岸經濟合作結構協議: 附件一貨品貿易早期收穫產品清單及降稅安排, 中華民國經濟部, http://www.moea.gov.tw/Mns/populace/news/News.aspx?kind=1&menu_id=40&news_id=19038(下載日期: 2010 年 7 月 16 日).

표 2: 중국의 대대만 관세 인하 일정

2009년 관세율	제 1년	제 2년	제 3년
5%미만	0	-	-
6%~15%	5%	0	-
16 이상	10%	5%	0

자료출처: 海峽兩岸及各做結構協議附件一貨品貿易早期收穫清單及降稅安排, 中華民國經濟部, http://www.moea.gov.tw/Mns/populace/news/News.aspx?kind=1&menu_id=40&news_id=19038 (下載日期: 2010年7月16日).

그리고 중국이 개방한 조기수확 품목의 2009년 대중국 수출을 보면, 석유화학 제품이 88개 품목에서 59.44억불로 대중국 수출의 6.93%, 금속제품은 22개 품목에서 18.18억불로 2.12%, 방직제품은 136개 품목에서 15.88억불로 1.85%, 기계제품은 107개 품목에서 11.43억불로 1.33%, 철강제품은 22개 품목에서 10.78억불로 1.26%를 기록하는 등 총 138.37억불로 대중국 수출의 16.14%를 기록한 수출 주력들이 포함되어 있다.¹⁸ 또한 중국은 서비스 무역 조기수확 부문 및 개방조치에 따라 대만에 연구개발, 컨벤션 전시, 컴퓨터 서비스, 영화, 병원 등의 전문직 서비스 개방하였으며, 보험, 은행과 증권 등의 금융서비스를 조건부로 개방하였다.¹⁹

그리고 대만은 중국에게 석유화학 42개, 기계 69개, 방직 22개, 운송공구 17개, 기타 117개 등 총 6개 분야에서 267개 품목을 개방하였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도 2009년 관세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연구개발, 컨벤션 전시, 영화를 비롯하여 9개의 서비스 부문과 은행서비스를 개방기로 합의하였다. 양안 간의 상호개방한 상품의 품목 수, 교역 금액 그리고 농산물 개방(중국은 자국의 경쟁력이 앞서는 농산품 시장 개방을 요구를 포기하고 오히려 일부 농산품 시장을 대만에게 개방)에서 보듯, 조기수확프로그램에서 대만의 수혜분야는 중국 보다 훨씬 크다. 이는 결국 조기수확프로그램 실행을 통해서 대만이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중국 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것을 나타내고 있다.

IV. 한국의 대중국 수출 현황

1. 대중국 수출의존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980년 1,500만 달러를 시작으로 1991년 10억 달러, 1996년 100억 달러, 2008년에는 9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양국 교역이 시작된 이래 폭발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무역교류 30년도 안되어 수출액이 6000억 배로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빠른 수출성장 속에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2008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913.9억

¹⁸ ECFA 貨品及服務貿易早期收穫計畫, 中華民國經濟部, http://www.moea.gov.tw/Mns/populace/news/wHandNews_File.ashx?news_id=19007&serial_no=2

¹⁹ 海峽兩岸經濟合作結構協議: 附件四服務貿易早期收穫部門及開放措施, 中華民國經濟部, http://www.moea.gov.tw/Mns/populace/news/News.aspx?kind=1&menu_id=40&news_id=19038 (下載日期: 2010年7月16日).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는 제 2, 제 3 수출국이 미국과 일본의 463.7 억 달러와 282.5 억 달러를 합한 금액 보다 많은 액수로서 대중국 수출이 한국 경제발전에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2009 년도 세계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해 한국의 대외 수출은 3,635.3 억 달러로 전년도 수출액 4,220.0 대비 -13.9%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대중국 수출 또한 867.0 억 달러로 전년 913.9 억 달러 보다 -5.1%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는 평균 감소율 -13.9%의 1/3 수준이며 특히 대미국 및 대일본 수출 감소율 -18.8%과 -22.9%에 비해서 대중국 수출의 안정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입장에서 보면 대중국 수출은 한국 경제발전에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실 양국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한국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한국에게 새 투자처와 수출시장을 제공하여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을 제공한다.²⁰ 따라서 한국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대중국 투자와 무역을 확대하여 중국시장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도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1992 년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3.5%에 불과했으며 그리고 비록 매년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증가 한다해도 1990년대까지는 10%미만에 그쳤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특히 2005년에 21.8%를 넘어선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2009년에는 대외수출의 침체 속에 23.8%까지 치솟게 되었다.

표 3: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 추이

(화폐단위: 억

달러)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외 수출 (A)	2,858.4	2,844.1	3,254.6	3,714.8	4,220.0	3,635.3
대중 수출 (B)	497.6	619.2	694.6	819.9	913.8	867.0
비중 (B/A)	17.4%	21.7%	21.3%	22.0%	21.6%	23.8%
대외 무역수지 (C)	613.8	231.8	160.8	146.4	-132.7	404.5
대중 무역수지 (D)	201.8	232.6	209.0	189.6	153.9	324.6
비중 (D/C)	32.8%	102.0%	129.9%	129.4%	--	80.2%

자료출처: KITA.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한국이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절대적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위의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5-2007년 3년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대외 무역수지의 비중에서 100% 이상을 기록하였다. 이는 대중국 무역에서 내는 흑자로 대외무역의 적자를 메우는 형국으로, 한국 대외수출과 대외무역 수지에 대중국 무역이 절대적인

²⁰ 河凡植, 「和平繁榮政策與韓中關係發展」, 問題與研究, 第 47 卷第 1 期(2008 年 3 月), 頁 135.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인 대중국 국제무역수지 의존은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하면 대외 무역수지 적자로 귀결되는 악순환구조를 띄게 된다. 또한 이렇게 과도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로 인해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의 영향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중국시장의 개척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 아세안,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대외수출구조의 다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한국의 대중국 수출 구조

1980년 한중 무역 개방이래, 양국 간의 교류는 3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양적·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다. 양국 간의 개방 초기 무역품목은 한국이 중국에서 면직물과 고형연료, 알루미늄 및 곡물 등 산업재를 수입하고 중국이 부족한 철강제품, 화공품 등을 수출하는 등 상대방 경제과 산업발전에 필요한 제품을 서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무역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건축물, 유연탄, 생사, 면, 합성섬유 등의 품목이 강세였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화학비료, 환식탄화수소, 철, 등의 품목이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 대 들어서서, 양국 산업의 발전과 양국 간의 경제교류의 급속한 확대되면서 교류 품목이 다양해지고 주요 교류 품목도 IT와 하이테크 등의 자본집약형 제품들이 강세를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1990년 중반까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었던 섬유제품과 플라스틱제품, 철강 등의 제품에서 전기기기, 광학기기, 기계류, 유기화학품, 프리스틱제품 및 석유화학 제품들로 전환되었다.

표 4: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변화 추이

1988년			1998년			2005년			2009년		
HS	품목명	비중	HS	품목명	비중	HS	품목명	비중	HS	품목명	비중
31	비료	17.4	39	플라스틱	13.7	85	전기기기	27.2	85	전기기기	28.3
72	철강	15.6	85	전기기기	11.9	84	기계류	15.7	90	광학기기	17.2
39	플라스틱	15.3	27	광물유	9.6	29	유기화학	9.7	84	기계류	10.9
29	유기화학	14.0	84	기계류	8.5	90	광학기기	8.6	29	유기화학	9.0
55	인조섬유	6.2	72	철강	7.8	39	플라스틱	7.4	39	플라스틱	8.2
38	화공품	5.6	29	유기화학	7.6	72	철강	5.4	27	광물유	5.8

자료출처: KITA.

이들 제품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6대 품목으로 대중국 수출을 주도하며 한국의 무역경상수지에 절대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 6대 수출품목의 대중국 수출 비중을 보면, 2005년 대중국 수출의 619.15억 달러 중의 458.54억 달러, 2006년 694.59억 달러 중의 576.2억 달러, 2007년 819.85억 달러 중의 646.48억 달러, 2008년 913.89억 달러 중의 724.00억 달러와 2009년 867.03억 달러 중의 687.59억 달러를 기록하여 각각 74.0%, 76.0%, 78.9%, 79.2%와 79.3%로 그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V. ECFA 의 한·중·대만 경제관계에 대한 영향

1.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 구조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수입시장 또한 대폭 성장하였다. 2009 년도 중국의 수입시장은 1 조 억 달러로 미국 시장의 2/3 의 규모로 성장하며 세계 제 2 의 수입시장으로 부상하였다.²¹ 이에 따라 전세계 200 여 국가가 중국시장에 수출을 하는 등 중국은 세계의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수출주도형 국가로 중국 수입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 현재 한국과 대만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2, 3 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2000 년 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이 근소하게 우위를 지켜으나 2005 년 이후 한국이 대만을 추월하여 2 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차이는 1% 이내로서 중국시장을 쟁탈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표:5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억 달러,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對한국	769	11.6	898	11.3	1040	10.9	1,122	9.9	1,021	10.2
對대만	747	11.3	871	11.0	1010	10.6	1,033	9.1	857	8.6

자료출처: KITA.

뿐만 아니라 2000 년 이후 중국 경제와 산업이 발전하면서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품목 역시 전기기기, 석유화학제품 등으로 제편되었다. 이로 인해 양국은 유사한 대중국 수출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자국의 주요 수출품목들이 서로 중복되었다. HS 코드 4 단위 기준으로, 2009 년도 양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20 개 품목 중의 13 개 품목이 중복되어 있다.

표 6: 2009 년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에서 주요 중복품목

(단위: 억 달러, %)

중복품목		한국			대만:542		
HS	품목명	순위	금액	비중	순위	금액	비중
8524	액정 다이비스	1	127.4	14.6	1	103.3	19.1
9013	전자직접회로	2	67.3	7.8	2	83.1	15.3
2710	석유와 역청유	4	39.3	3.8	13	7	1.3
2917	폴리카르복시탄	5	28.1	3.2	4	18.4	3.4
2902	환식탄화수소	6	26.3	3.0	11	9.8	1.8
8473	컴퓨터, 디스크 부품	9	17.9	2.1	8	11.0	2.0

²¹ 세계 최대 수입시장은 미국으로 2008 년 대외수입이 2 조억 달러, 2009 년에는 1.5 조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무역협회 미국통계자료 인용.

3901	에틸렌 중합체	10	16.2	1.9	15	6.2	1.1
9001	광섬유, 광섬유다발	11	15.0	1.7	9	10.8	2.0
3903	스틸렌 중합체	14	11.7	1.3	7	12.0	2.2
8541	반도체 디바이스	16	10.6	1.2	3	20.8	3.8
8534	인쇄회로	17	10.4	1.2	5	14.1	2.6
2901	비환식탄화수소	18	9.6	1.1	19	5.1	0.9
3907	폴리아세탈수지	20	9.2	1.0	12	8.5	1.5
	합계		389.0	44.9		310.1	57.2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수출입무역통계, 필자정리.

2009 년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은 각각 867 억 달러와 542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가운데 한국 대중국 수출금액의 44.9%와 대만의 대중국 수출금액의 57.2%가 서로 같은 품목에서 일궈낸 것이다. 그리고 이들 품목 중에 액정 디바이스와 전자직접회로가 한국과 대만의 주력제품으로 대중국 수출을 선도하면서 중국시장에서 양국의 경합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의 대중국 수출구조로 인해 중국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은 결국 자국의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일 수 밖에 없는 형국에 처해지게 되었다.

2. 한국기업의 경쟁력 약화 유발

최근 대만은 중국과 ECFA 체결에 서명하였다. 대만은 ECFA 의 조기수확프로그램을 통해 539 품목의 관세를 면제받게 되었다. 조기수확에 포함된 품목들의 2009 년도 대중국 수출은 138 억 달러로 대만의 대중국 수출의 25.5%에 이른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에 개방하는 조기수확 품목 중에 한국과 중복되는 품목은 494 개, 금액으로는 182.6 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9%에 이르는 수치이다.²² 조기수확품목 중에 한국과 중복되는 이들 제품에 대한 명목관세를 평균 9.5%이다. 따라서 ECFA 발효후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는 결국 대만에게 한국 보다 월등히 앞선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하여 결국 한국의 주요 중국 수출시장을 위협하게 할 것이다.

산은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 반도체, 휴대폰, 가전, 디스플레이 등의 주요 산업 수출중에 석유화학을 제외하고 ECFA 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²³ 그 이유는 산업별 품목의 수급 상황과 한·중·대만 간의 무역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의 경우는 HS4 기준으로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 20 대 품목에서 7 개가 중복될 정도로 경합도가 높은 품목이다. 따라서 조기수확에 선정된 88 개 품목 중에 상당수가 한국제품과 경합중인 상황으로 대만은 중국이 부과하는 5-6%대의 관세의 무관세화로 인해 한국제품 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 졌다. 그리고 이로 인한 한국의 경쟁력 약화로 한국제품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²² 지만수 이승신 여지나, “중국·대만 ECFA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10, No. 23, (2010. 7. 22), p. 7. <http://www.kiep.go.kr/include/filedown.jsp?fname=%C1%A610-23%C8%A3.pdf&fpath=Pub0301&NO=185508&FNO=454> (검색일자: 2010. 8. 2)

²³ 장두석, “중국·대만 ECFA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슈분석**, 2010. 7, pp. 1-28. rd.kdb.co.kr/jsp/re/content/REIss0101_6656.jsp (검색일자: 2010. 8.2)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에는 포모사(台塑石化) 등 한국과 경합 가능한 유력 기업 있어서 대만은 향후 ECFA 의 추가 개방에 따라 중국 석유화학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영향력을 구축해서 자국 제품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비록 당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품목으로 철강과 일반기계가 있다. 철강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품질경쟁력에서 한국이 대만 보다 우위를 보이고있다. 그리고 한국과 경합되는 품목도 스테인레스강 및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등 6 개품목으로 비중이 미미하다 따라서 ECFA 체결로 인한 대중국 수출의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나 대만은 조강생산 세계 26 위(2009 년 기준)의 경쟁력 있는 중국철강공사(中鐵公司)를 보유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관세품목이 확대되면 한국제품과 경합하는 물량이 증가하여 결국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위협할 것이다. 또한 일반기계에서도 한국과 대만의 경합도가 낮고 제품경쟁력에서 차이가 있어 단기적 영향은 미미 하다. 그러나 일반기계는 관세율이 10%로 높아 무관세화의 실익이 클 뿐만 아니라 대만은 공작기계 등 일부분야에서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일부품목에서 가격경쟁력에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한국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최대 품목인 IT 품목은 비록 대만과의 경합도가 제일 치열한 품목이지만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의 적용으로 이미 한·중·대만 간 무관세화가 이루어져 ECFA 조기수확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국 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ECFA 체결이 IT 품목을 중국시장에 수출하는데 직접적 작용하는 영향은 적다. 또한 자동차 및 그 부품 역시 ECFA 의 영향이 작은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관세는 10%-13%, 완성차는 25%로 대만은 ECFA 를 통해 한국 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한국이 중국에 판매하는 완성차는 대부분 중국 현지에서 생산 및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의 비중이 작다. 그리고 양국의 주요 자동차부품 수출 품목 또한 한국은 기어박스, 클러치, 스티어링 휠 관련 부품이고 대만은 완충기, 서스펜션, 및 소음기로서 다른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ECFA 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그러나 IT 산업과 자동차 산업도 장기적으로는 대만과 중국의 경제협력 강화에 따라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에서 관세는 일반무역만 부과하고 가공무역은 관세유예 대상이다. 따라서 가공무역의 수입은 ECFA 에 따른 관세인하나 철폐의 효과를 볼 수 없다. 2009 년 ECFA 조기수확 프로그램과 겹치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494 개의 품목의 182.6 억 달러이며 그 중 ECFA 에 따른 관세철폐의 영향을 받는 일반무역은 74.7 억 달러로서 대중국 수출총액의 7.3%에 불과하다.²⁴ 그러나 조기수확 프로그램은 ECFA 의 초기 관세 철폐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향후 관세 철폐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 확실하며 장래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²⁴ 지만수 이승신 여지나, “중국·대만 ECFA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p. 7.

3. 한국의 대응: 대만과의 경제관계 강화

ECFA 체결의 피해가 제일 적은 품목은 한중 간에 이미 무관세화가 진행되었거나 생산기지의 현지화로 가격 경쟁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IT 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품목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시장의 방어적 입장에서 중국과 FTA 체결이 필요하다.²⁵ 그러나 한·중 FTA 추진은 최근 일어난 천안함 침몰사건과 이를 둘러싼 한중 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협력관계가 경색되면서 쌍방 FTA 추진은 정체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ECFA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중 FTA 추진 이외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실 ECFA 체결이 한국 미치는 제일 큰 영향은 가격 경쟁력의 약화이다. 이는 IT 산업이나 자동차산업 등 이미 무관세화가 이루어졌거나 생산기지의 현지화로 인해 가격 경쟁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데서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생산기지 현지화와 소비시장 개척 등의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²⁶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질적양적으로 대폭 성장하면서 많은 한국기업의 현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기업의 현지화 추진은 문화적 습성의 차이로 인해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장악도가 부족하다. 그러나 대만기업은 문화적으로 중국과 일맥상통한 관계로 인해 중국시장에 진출한 대만기업은 중국시장 환경에 대한 장악도가 외국기업보다 높다.²⁷ 이에 따라 일본기업은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만기업과 협력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하였다. 일본기업의 중국시장 진출방식은 주로 대만기업의 중국사업 참여를 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방식은 일본기업과 대만기업의 공동으로 중국에 가서 합자회사 설립하는 방식, 대만기업이 일본기업을 대리해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일본기업의 브랜드와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 일본기업이 중국의 대만기업에게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주문하고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 일본기업의 대만지회사와 대만기업 간의 합자기업으로 하여 중국시장개척에 협력하게 하는 방식 등이 있다.²⁸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은 식품업과 자동차, 전자정보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대만기업과 협력 통해 중국소비시장을 개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을 전자제품을 통해 자국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체결한 ECFA 로 인해 대만은 중국시장에서의 대만기업의 경쟁력은 제고될 뿐만 아니라 대중화 경제권 일원으로 중심축의 역할을 할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대만기업과 중국시장에 공동진출은 한국기업 단독으로 중국시장 진출하는 것 보다 리스크를 줄이서 한국기업의 현지화에 유리한 작용을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중국시장에서 양국 간의 경쟁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²⁵ 양평섭, “한·중 FTA 가 필요한 이유와 과제,” **프레스리안**, 2010. 6. 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04151313&Section=05

²⁶ 권혁재,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향,” **SERI 경제포커스**, 제 300 호(2010. 7. 6), p. 7. <http://www.seri.org/db/dbReptV.html?menu=db03&pubkey=db20100706001>(검색일자: 2010년 7월 7일)

²⁷ 金珍鎬, 「大陸韓商當地化策略與挑戰-以 LG 電子爲例」, 陳德昇主編, **台日韓商大陸投資策略與佈局: 跨國比較與效應**(台北: INK 出版, 2008 年), 頁 249.

²⁸ 朱炎, 「台商大陸投資的日本因素與經濟全球化意涵」, 陳德昇主編, **經濟全球化與台商大陸投資: 策略、佈局與比較**(台北: INK 出版, 2008 年), 頁 322.

대만기업과 중국 내수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²⁹

VI. 결론

대만은 전통적인 무역입국으로 수출에 의존해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과도한 수출 의존도로 인해 대만 경제는 대외 경제환경 변수에 취약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대만의 주요 수출대상은 중국과 아세안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로 역내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어 2009 년의 수출 의존도는 66.6%로 전체 수출의 2/3 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역내 경제환경은 대만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를 부상하였다. 최근 들어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주요 경제체와 아세안 간의 FTA 가 전면 발효되면서 역내 국가들 간의 무역에서 무관세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의 정치적 장벽에 가로 막혀 역내 경제통합에서 제외되면서 역내 국가들과 FTA 협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은 경제적 주변화와 수출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부진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대만은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ECFA 를 체결하였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대만 수출의 26%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 시장으로 대만 경제성장의 핵심적 파트너이지만 중국시장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대만과 다른 국가 간의 정식관계를 반대하여 대만의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은 중국과 ECFA 체결을 통하여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 ECFA 체결을 발판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FTA(혹은 ECFA 와 같은)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중국 수출 의존도 심화를 완화하고자 한다.³⁰

중국시장은 한국과 대만 대외수출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이다. 또한 양국의 대중국 수출 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중국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만과 중국 간의 ECFA 체결은 중국시장에서의 한국제품의 경쟁력 약화와 장기적으로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한중 FTA 의 체결이다. 그러나 최근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양국 간의 마찰로 인해 양국 협력관계는 정체되어 빠른 시일 내의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현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만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은 한국기업의 현지화 및 중국시장에서 대만과 경쟁을 줄이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에 유리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대만과 협력을 통한 중국 현지화 강화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양안 간의 ECFA 는 결국 장기적으로 한국과 중국, 대만 간의 경제관계를 밀착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²⁹ 정준규·유기자, **중·대만 경제협력 체제협정(ECFA) 어떻게 진행되나**(서울: KOTA, 2009), p. 25.

³⁰ 현재 대만과 싱가포르의 경제협력협정(經濟合作協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台星洽簽 FTA 府：有助台灣經濟戰略」, **中國新聞評論網**, <http://www.chinareviewnews.com/doc/1014/0/3/9/101403942.html?coluid=93&kindid=3310&docid=101403942> (下載日期: 2010年8月13日).